

약사공론으로 되돌려본 사건

약사공론 4000호 동안 표시가제도, 표준소매가격제도 등 가격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였다. 약국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유통질서의 문제로서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소중한 가치로 여겼지만 시장경제를 지나치게 신봉한 약국들은 가격을 주요한 마케팅 소재로 삼았다. 90년대 초중반 한약파동은 약사 사회에 집단적 패배감과 함께 사회에 면면히 흐르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제시했다. 단합된 집단의 힘 못지않게 사회적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주장은 메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것이며, 이같은 교훈은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약사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반면교사처럼 보여줬다. 다시 시간은 흘러 미래는 고려화사회, 질병 예방관리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약국의 준비는 무엇이어야 할까?

90년대 초중반 한약파동

[illegible]

의약판매업

[illegible]

가 격

(3)	1997.5.26	新聞	한글	제 2944 호
-----	-----------	----	----	----------

(대화합과 제97~10호)

대한약사회 회원자녀를 위한 해외유학탐방단 모집

대한약사회에서는 전통의학의 원류를 찾아 세계 각국 약재의 생산·공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하여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 자녀들의 세계화와 이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일로하와 의료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흥미와 관심을 가진 자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본국의 유명 하쿠스 덴보고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18세기 중세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명문 대학을 방문하여 2주간의 유학탐방을 실시합니다.

일본 큐슈탐방 4월5일-FERRY 이용

- 출발 : 창1 1차-7월20일 ~25일 2차-8월6일 ~13일
- 귀환 : 창1 1차-8월13일 귀환창1(초·중·고)
- 비용 : 창1 1차-8월25일(수) 2차-7월16일(수)

대화합·재결속 다짐



현안해결에 회세지

6월중 표결

전국시도지방자치회의 성명서 발표

○20일 열린 지방청 회의는 역사적인 현안 타결에 앞장설것을 다짐했다.

선 령 서

The figure displays two newspaper front pages side-by-side for comparison. The left page is from the Korean newspaper 'JoongAng IlBo' (中央日報), dated May 1, 1994. Its main headline reads '法的補完 때까지 表示價사업 留保' (Legal completion until then, representation price business retained). Other headlines include '食法적 보외되고 創刊進行' (Dietary law outside and launch progress) and '會장의 宿願 기로고 成' (President's long-held wish about to become reality). The right page is from the Japanese newspaper 'Asahi Shimbun' (朝日新聞), dated May 1, 1994. Its main headline reads '表示口調에 協力 추진 결의' (Decision to cooperate with representation tone). Other headlines include '基本 자세 확립에 主眼' (Main focus on establishing basic attitude) and '食生活 改善 努力' (Efforts to improve diet life).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홍 권 우

수석부회장	송 인 권
부 회 장	조 용 권
총 무	조 성 연
총 무	이 기 철

부 회 장	이 경 선
총무이사	김 선 무
총 무	김 성 욱
총 무	정 지 훈

부 회 장 김성욱
재정총무 이정표
총 무 하용우
외 동문일동